# 격 있게 삽시다

김 민 소장의
탕탕평평

필자의 직업은 좀 다양하다.

정책연구소장으로 정책에 관련된 일을 하며, 동시통역을 하고, 방송을 하고, 강연을 하고, 칼럼을 쓰는 것이 주된 일이다. 이런 일들의 공통점은 언어와 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어와 글은 그 익숙함에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정확한 상대방의 직함을 불러주고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필자의 경우 까마득한 후배나 연하에게도 상대방이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쉽게 반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로부터 받은 명함의 직함을 정확히 불러주는 편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대표님, 선생님,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즐겨 부른다. 이유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상대를 대우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는데도 상대의 직함을 다르게 부르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호칭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한마디로 무례한 일이다. 아울러 친근감의 표시인지는 모르지만 가깝지 않은 사이에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어정쩡한 화법을 사용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성인끼리의 대화로는 적절치 않다.

필자와 아주 가까운 지인의 예다. 그 분은 모 대학에 교수로서 재직 중이시고 올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교육감으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나이로는 삼촌 내지 큰 형님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이다. 이 분은 오랜 세월 교제를 하면서도 아직도 필자에게 어김없이 존대를 하신다. 오히려 필자가 거듭 부탁을 드려도 한결 같으시다. 관계상 불편하고 어색함에도 항상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에서 필자로 하여금 진심어린 존경심과 그 분에 대한 권위를 내 스스로 가지게 만드시는 매력의 소유자다. 지식인 이전에 인성이 정말 바른 분이다.

중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반말을 하고, 단지 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아무런 교제가 없었음에도 함부로 말하고, 친근한 관계가 아직 아님에도 나이로 서열을 가려 형님이라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다.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셈이다. 또한 남이 보기에도 결코 좋아 보일리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흔히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을 쓴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사귀고 어울린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그럴 때 가장 자연스럽고 비교적 오해와 갈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과거의 신분 사회도 아니고 급기야 '4차산업혁명'이 대두되는 마당에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많은 것이 공유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폭넓은 교제가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좀 '격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의 언행이 타인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씩은 스스로를 중간점검 할 수 있는 통찰력과 센스가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상대의 단점만을 찾아서 내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런 식으로 타인과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고 스스로 변화될 때 비로소 타인과 세상이 바뀌게 된다.

성경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도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라'라는 말씀이 있다. 적절한 언어가 적절한 행동을 만들고, 적절한 행동이 나와 우리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유연함이 곧 '격 있는 관계'와 '격 있는 사회'를 만들게 된다.

필자 자신을 포함한 내가 아는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 국민께 부탁하는 바이다.

"격 떨어지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격 있게 삽시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 미리 알려주셔야죠

기자 수첩
이 범 종
〈유통&사회부〉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못해 지탄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의 '아이폰(iPhone) 배터리 게이트'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기술 문제만이 아니다. 애플은 아이폰 배터리 노후화와 영하의 날씨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시적 성능저하'를 택했다. 과거에 비해 추운 날씨 때문에 꺼지는 일이 줄었으니, 애플의 방침을 기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원인 발표에 '최적화의 배신'을 느꼈다. 애플은 '엔드 투 엔드(end to end)'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디자인 한다는 의미다.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두 요소가 최적의 성능과 디자인으로 통합되는 장점이 있다. 맥(Mac)과 아이팟(iPod), 아이폰의 탄생 배경이자, 애플 혁신의 DNA이기도 하다.

반면 이 같은 방식은 '우리가 모든 요소를 직접 디자인하므로, 소비자가 신경 쓸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자세와 맞물리게 된다. 본래 의도와 상관 없이 '소비자 기망(欺罔)'으로 비춰질 정책을 펼 위험성이 있다. 애플이 내세우는 최적화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양날의 검'인 셈이다.

다른 회사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인텔은 최근 자사 중앙처리장치(CPU)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인텔이 'CPU게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패치를 내놨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패치를 설치할 경우 PC가 무작위로 꺼졌다가 다시 켜진다. 보안패치 설치를 연기하라는 권고마저 나왔다.

유료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아는형님' 등 일부 한국 예능에서 출연자가 춤 출 때 엉뚱한 경음악을 넣거나 모창 장면을 아예 빼는 식으로 서비스 하고 있다. 회원 약관에는 관련법에 따라 서비스한다고 적혀있지만, 국내 다른 업체는 본방송 그대로 서비스 한다. 넷플릭스 측은 시청자가 한 달에 1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도 극단적인 편집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기업의 엇나간 처신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 회사는 추상적인 약관을 내세우기 전에, 소비자가 불편해할 부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기업이 솔직하게 인정한 단점을 압도할 장점에 마음을 열고 '동의합니다'를 누를 것이다.

/joker@metroseoul.co.kr

## 인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미디어연구센터장 정봉근 △ 광고기획국장 이종경 △ 광고매체국장 금장환 △ 경영기획실장 조영현 △ 지역언론지원국장 윤현배 △ 뉴스유통국장 조동시

◆**한국고용정보원** ◇ 부서장급 △고용서비스전략실장 김한준 △고용정보분석센터장 권혜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주무현 △일자리정보플랫폼실장 박건욱 △정보화운영실장 임종훈△ 기획조정실장 김영훤△ 청렴감사실장 안홍균

◆**수원시** ◇ 승진 △ 서울사무소장 김진표 △ 장안구 김도현 △ 장안구 정호현 △권선구 김충환 △ 권선구 안병철 △ 권선구 임병포 △ 권선구 허숙경 △ 팔달구 송성덕 △ 팔달구 한장수 △ 영통구 김기서 △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정철호 △ 북수원도서관장 갈미숙 △ 팔달구 김영미 △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도로정비과장 윤흥선 △ 장안구 김정화 △ 권선구 최광균 △ 권선구 하명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 계측전기평가실장 박현신 △ 검사사업관리실장 장창선 △ 원자력운영분석실장 김도삼 △ 원자력비상대책실장 김홍석 △ 방사선비상대책실장 권정완 △ 영광주재검사팀장 최종수 △ 신고리5·6 PM 이정재 △ 공급자QA PM 오규명

## 부음

▲ 정선택 씨 별세, 홍영준(동서화학공업 상무) 유인근(스포츠서울 체육부 부국장) 조윤선(자영업) 최창수(하이난항공 기장) 씨 장인상 = 14일, 서울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02-2227-7594

▲ 심재식씨 별세, 김요셉(대덕넷 취재팀장)씨 장인상 = 13일 오후 8시 40분, 충남 논산시 황산장례문화원 202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41-733-4447

▲ 이충식 씨 별세, 이병돈(순천향대학병원 교수)·병선(KEB 하나은행 차장)·화영(서울 중평중학교 교사) 씨 부친상 = 14일 낮 12시 15분, 대전 유성선병원 VIP 1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42-825-9494

▲ 신용견 씨 별세, 신연재(교보생명 법인본부장)·진경·정인 씨 부친상, 송희종(더조은병원 마취통증과장)·김한욱(전북대병원 피부과장) 씨 장인상 = 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16일. 02-3010-200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알 감디 에쓰오일 CEO, 산행으로 신년각오 다져**

오스만 알 감디 에쓰오일 CEO가 지난 13일 서울 북한산 우이령길에서 임원 및 부장급 이상 직원,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등 200여명과 산행을 하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14일 에쓰오일에 따르면 알 감디 CEO는 임직원들과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에쓰오일

# 우본, 대학생 서포터즈 80명 모집

## 올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 마케팅, 홍보, 사회공헌 등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8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사회공헌활동 ▲일일 우체국 직원 체험 ▲우정서비스 체험 및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대내·외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생은 이달 26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소재지 관할 지방우정청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은 내달 5일 개별 통지하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체국금융개발원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화손보, 신입사원 DIY 가구 만들기 봉사활동**

한화손해보험은 2017년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 29명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경로당 다섯 곳을 방문하여 DIY 가구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신입사원들은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발장, 서랍장, 식탁세트 등 총 8조를 조립했다. /한화손보

**IBK연금보험, 사회복지기관에 복지차량 후원**

IBK연금보험은 지난 12일 본사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차량을 기증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기관 차량후원 사업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IBK연금보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전국 300여 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하여 서류 심사 및 해당 기관 실사를 통해 총 4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원된 차량은 도시락 배달, 병원동향, 주거환경개선 등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왼쪽에서 네 번째)IBK연금보험 장주성 대표이사. /IBK연금보험

# 과기정통부·KISA, 클라우드 지원사업 공모

## 23일 KISA 서울청사서 사업설명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보안서비스를 발굴하는 '클라우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연구진을 모집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5억 원이며 '서비스 환경 구축' 분야에 4팀, '보안서비스 개발'에 2팀 등 총 6팀을 선정한다. 23일에는 송파구 가락동 KISA 서울청사에서 사업설명회도 연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받는다. /김나인 기자